

취약지역 삶의 질 향상 탄력

임실군,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 연속 20억여원 지원

임실군이 4년 연속 '2019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국가공모에 선정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탄력을 받고 있다.

군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19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임실을 갈마마을이 최종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2015년 임실을 감삼마을과 2016년 운안면 생안마을, 2017년 관촌면 방현마을에 이어 올해 임실을 갈마마을이 선정되며, 4년 연속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주거여건이 열악하고 안전·위생 등 취약한 농촌마을의 주거환경개선과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민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다.

이번 선정 과정에서 갈마마을은 슬레이트와 노후주택 등 지역의 낙후도뿐 만 아니라 주민 주도의 활발한 공동체 활동과 강력한 추진 의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국비 13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0억여원을 투입하여 갈마마을의 슬레이

트 지붕철거 및 개량과 빈집정비, 마을안길정비, 담장정비 등 대대적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심민 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사업추진 필요성에 공감한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과 추진의지가 큰 역할을 했다"며 "대상지 선정부터 사업 신청 및 평가 준비에 이르기까지 발로 뛰는 행정추진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발굴을 통한 생활여건 개선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매우마을, LPG배관망 지원사업 선정

순창군 금과면 매우마을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한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갖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소규모 마을을 대상으로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등을 설치해 기존 LPG 가격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 3일 금과면 매우마을 회관에서 주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군 관계자를 비롯해 LPG배관망사업단이 참석해 사업추진 상황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인 4억 2000만원의 5%인 2100여만원을 주민이 부담하면 가스보일러 설치와 가정내 배관망까지 설치해주고 있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군은 이날 안에 위탁 수행기관인 한국LPG배관망사업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

획이며, 올 연말까지는 LPG 소형 저장탱크, 배관망 등의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매우마을 주민들은 이번 사업 추진으로 매월 가스료를 배달시켰던 불편함이 해소되는 동시에 기존 LPG 가스통을 사용했을 당시보다 안정성 또한 확보해 사업 완공에 거는 기대가 크다.

더욱이 등유나 개별 LPG를 이용할 때 보다 20%가량 연료비가 절감돼 경제적 부담도 덜게 됐다.

노홍래 부군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해 더욱 저렴하게 난방과 취사용 LPG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

임실군의회(의장 신대용)는 지난 3일 군의회 의정실에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수행할 3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대표위원에 임실군의회 황일권의원(임실·성수)을 비롯하여, 그동안 공직에서 주요 요직을 역임하면서 행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고루 갖추고 있는 이명근·이성해씨가 위촉됐다.

신대용 의장은 "2018회계연도 결산



검사에 있어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균형개발 등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길 바란다"며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 위원들은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 동안에 걸쳐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지출의 적법성과 예산낭비 요인 등의 검사활동을 펼치게 되며, 결산 결과는 오는 6월 중에 열리게 될 정례회에서 승인절차를 거쳐 고시하게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지리산 정령치 순환버스 개통

남원시가 지역으로의 관광객 유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남원역과 지리산 정령치를 오가는 지리산 정령치 순환버스를 4일 개통식을 갖고 본격 운행에 들어갔다.

지리산 정령치 순환버스는 4월부터

11월 말까지 매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주 6일 운행하고 월요일은 쉬고, 운행시간은 오전 8시 25분 남원역 앞을 출발해 정령치에 10시에 도착하며, 오후 2시 30분 남원역을 출발해 정령치에 4시에 도착한다.

운행버스는 16인승 소형버스로 요금은 1,000원이며, 노선은 남원역, 시외·고속버스터미널, 고기리, 정령치, 반선, 산내, 인월, 운봉, 남원역이다.

한편, 정령치 순환버스는 지난 1일 개통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눈이 내려 연기됐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은 '제16회 세계정구선수권대회' 국가대표 본선 1~2차 최종 선발전이 오는 12일 열린다.

순창서 정구 국가대표 선발전 개최

정구의 메카로 알려진 순창군에서 '제16회 세계정구선수권대회' 국가대표 본선 1~2차, 최종선발전이 오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열린다.

이번 선발전은 대한정구협회(회장 이계왕)가 주최하고 전북정구연맹(회장 신동식)이 주관하며 전라북도도와 순창군이 후원한다. 실업팀과 대학팀, 고등학교팀 등 총 300여명이 참가해 공설운동장내 하드코트에서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에는 순창군청 소속 오승규, 황주연, 김선근, 김병국 선수가 일반부로 출전하고, 순창제일고 남자팀 서범규,

김민중 선수가 출전 자격을 얻었다.

이외에도 2019년도 한국주니어 국가대표 최종선발전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5일간 열린다.

고등학교 선수만 참가하는 이번 선발전은 제1회 아시아정구주니어 선수권대회 대표 선발전(18세부)을 겸하고 있어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 야구대회 개최 이후 이번 정구 국가대표 선발전으로 300여명의 선수단이 순창을 찾은 것으로 보여 다시 한 번 지역경제 활성화에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가 쓰레기 매립장을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조성했다.

남원시, 요천생태습지공원 편의시설 추가

남원시가 쓰레기 매립장을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의 쉼터로 활용하고 있는 요천생태습지공원이 거듭나고 있다.

생활체육시설과 생태휴식공간을 갖추어 이는 곳으로, 새 봄을 맞아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공원은 14만5,298㎡ 규모로 야구장·다목적 운동장·애견놀이터 등

이, 습지부에는 연꽃 등 수생식물이 서식하는 수질정화습지·생태담방로 등이 조성된 대표적 생태계 복원 장소이다.

강인식 환경사업 소장은 "요천생태습지공원이 남원을 대표하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시-한국국토정보공사 행복나눔측량 사업 지원

남원시가 저소득기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4일에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 남원지사의 사회공헌활동 일환으로 지적측량서비스를 지원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 남원지사는 사회적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저소득층과 취약·소외계층의 주택건축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행복나눔측량' 사업을 실시 중이며, 매년 남원시 저소득가정의 무료 측량을 지원하고 있다.

금년에는 남원시 송동면 연산마을 다문화·장애인가구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복원측량과 분할측량 서비스를 지원해 지속적인 힘을 보탤다.

남원시 강환구 주민복지과장은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지역사회 기관들의 뜻 깊은 재능기부가 지속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 지원을 통해 시민이 행복하고 다 같이 잘사는 따뜻한 남원시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학교폭력예방

친구사랑 캠페인

남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4일 남원 Y중학교 정문에서 학교장, 학생 및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하이파이브 '친구사랑 캠페인'을 펼쳤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홍보물을 들고 나와 교사와 학생, 경찰과 학생들의 등굣길 하이파이브를 통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경찰은 이날 포퓰이 포순이 탈을 쓰고 학생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보여 주는 등 학교폭력 예방에 앞장섰다.

한편, 최홍범 경찰서장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체크리스트 점검활동을 꾸준히 추진한다."

학교 경찰 학부모가 하나가 되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